

광주 첫 '성소수자 축제' 앞두고 찬반 논란

21일 5·18민주광장서 퀴어축제...지역 종교계·유림 등 반대 "역사적인 장소서 개최 안돼" vs "인권도시서 포용 못해서야"

오는 21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처음으로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Queer) 축제'가 개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지역 종교계와 유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지역 종교계 등 축제를 반대하는 측은 '퀴어축제 자체도 문제지만, 역사적 의미가 깊은 5·18민주광장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성소수자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러워 축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2일 광주퀴어문화축제 운영조직위원회와 광주시,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퀴어문화축제 운영위는 최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장소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날 광주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21일에는 광주동부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는 '광주, 무지개 빛깔'을 슬로건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5·18민주광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축제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운영위는 축제 반대측의 대응을 우려해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인종과 계급, 성별에 의한 편견을 넘어 차별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퀴어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종교계와 유림 등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문화성 목사(노대동 한빛교회)는 "동성애자들이 광주를 여러 관점에서 타격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인권의 도시고 민주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민주성정인 5·18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특히 민주광장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시민의 성지다. 이곳에서 동성애

축제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기존 전통적 가치관에 반할 뿐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다. 이 문제는 기독교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두 광주향교 부정교는 "아무리 사회가 급변했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광주에서 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모든 생물체는 음(여성)과 양(남성)이 있어 후손을 남기는 것이 자연의 섭리지만 이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인류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퀴어문화축제 운영위원회와

Q 퀴어(Queer)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rx), 무성애자(Asexual) 등 성소수자를 일컫는 말로,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 제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개최됐다.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축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광주퀴어문화축제 운영위는 "성소수자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면서 "일부 혐오(반대)세력의 대응이 예상되지만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퀴어축제인 만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들과 함께 축제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여성민우회의 한 활동가는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시정의 장소 승인 아래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찬반의견이 맞서면서 광주경찰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 들어 타 지역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각종 마찰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퍼레이드 자체가 저지됐으며,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1000여명의 시민이 축제에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다. 당시 축제를 방해한 8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 신고 등은 없었지만, 축제 당일 일부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마찰 없이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미용예술경연대회 초집중 '제30회 광주시장애 미용예술경연대회'가 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한미용사회 광주시협의회(회장 이정례)가 주최한 대회에는 2000여명의 미용인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300억 횡령·배임' 이종근 부영회장 12년 구형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

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근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판했다.

또 "단순히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키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전두환 재판 예정대로 광주에서 한다

법원, 관할 이전 신청 기각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도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도 그대로 광주에서 진행된다. 광주고법은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조 2항에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이전 신청

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나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등 이유를 들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이 연기됐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에 따라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5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또 코카콜라 노조원 과잉진압 의혹

집회 노조원 아내 검거 과정 쓰러져 병원 이송

코카콜라 노조원 과잉진압 의혹(광주일보 2018년 9월 21일자 7면)을 받고 있는 경찰이 지난달 19일에 이어 또 다시 생존권 등을 요구하는 노조원을 연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집회에 함께 참석한 노조원의 아내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노조는 경찰이 폭력적으로 노동자를 잡아 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농성하며 차량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화물연대 노조원 A(28)씨와 다른 노조원의 아내 B(51)씨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인 A씨 등은 전날 밤 9시 5분경 광주 북구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막아 공장의 운송업무를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검거를 시도하자, 경찰관을 밀어 넘어지

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른 노조원의 아내인 B씨는 남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다, 공장 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는 B씨는 한달전에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이날 경찰 검거 과정에서 쓰러져 급급차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대응을 '폭력 연행'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제소와 법적 대응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를 바 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양심불량 마트 직원...억대 식자재 빼돌려 다른 마트에 팔아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식용유와 고추장 등 억대 식자재를 빼돌려 다른 마트에 판매한 30대 직원이 경찰서행.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상습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35)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식자재 마트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하는 것처럼 주인을 속여 209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뒤 다른 마트 업주들에게 팔아치웠다는 것.

○...A씨가 훔친 물건을 혈값에 구입한 B씨 등 다른 식자재 마트 업주 6명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마트 업주들이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전달하면 해당 물건을 훔쳐 나와 절반 가격에 팔아넘겼고, 마트업주들은 이를 정상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설명.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